

“하루”  
 (하)

이럴 때는 병이다



배 병 주

대하는 병이 아니다. 그러나 냄새가 난다면 지黄色이나 갈색으로 빛이 변하면

원래 건강한 부인의 질(膺)의 분비물은 무색투명 하던가 혹은 우유빛으로 되고 여기에 경관점액(頸管粘液)이 많아질 때에는 제란흰자위와 같은 투명하고도 끈기가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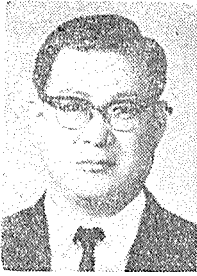
보통 냄새는 없으나, 아무리 청결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외음부(外陰部)에는 많은 잡균이 있으므로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는 외음부에 몇시간씩 붙어있던 분비물은 잡균에 의한 분해작용으로 산성의 특유한 냄새를 풍기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배설 직후인데도 불구하고 황색, 갈색 또는 연한녹색등 색깔이 붉은 대하가 나오면 이것은 어떠한 세균의 감염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여도 좋다.

질분비물(膺分泌物) 즉 대하는 어느 정도가 정상이냐고 하는 것은 수량으로 표현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보통은 외음부 이외의 부분까지 적셔서 불편한 감을 주지않은 정도라면 정상이라고 생각하여도 좋을 것이다.

질(膺)은 자동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

질속에는 항상 일정한 수분이 있어



서 질벽을 보호하고 있다.

건강한 질내에는 『테멜라인氏 질간균』이라는 세균이 무수

히 있는데, 이것이 질벽점막상피세포(腔壁粘膜上皮細胞)중에 포함되어 있는 『구라이코젠』을 먹어서 유산(젖산)으로 변화시켜서 질내(腔內)에 배출한다. 그러므로 건강한 질내는 약 50%정도, 즉 200배로 희석한 젖산용액과 같은 산성도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침입해온 잡균류 즉 포도상구균, 폐쇄상구균, 대장균 기타 등은, 이러한 산성용액중에서는 살수없어서 죽으며, 자궁구부근까지는 올라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에 침입한 잡균이나 병원균의 양이 많던가 힘이 강하면 『테멜라인 간균』족이 이 침입한 균에게 지면, 질내의 산성이 『테멜라인균』의 소실로써 알카리성으로 변하여 본래의 청소작용을 못하게 되는 것이다.

#### 대하(帶下)의 정체는 무엇인가

대하라는 것은 원래, 자궁내막, 자궁경관에 있는 점액선, 질점막에서 부

터의 삼출액, 질입구에 있는 『발토린氏선』등의 분비액이 혼합된 것으로서, 양적으로 따지면 점액선 및 질점막부터의 삼출액이 주된 것이다.

치녀기에 있어서는 보통은 질내의 『테멜라인균』의 자위력과 세균성감염의 기회가 중년부인보다 대단히 적다는 점등으로 이상태하가 적은 편이다.

치녀기의 이상태하는 땀갈흘리는 사람, 땀이 많다든지, 위가 약한 사람에게 위산과다가 되기 쉽다든지 하는 식으로 양(量)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하의 양이 좀 많은 것 같으나 고약한 냄새도 없고 착색도 되지 않은 정도는 염려할 것이 못된다.

#### 병적대하(病的帶下)란

병원균이 많이 들어가서 많은 백혈구가 죽으면, 농이 되어서 황색대하가 나오는데, 즉 외음염, 발토린氏선염, 질염, 경관염, 자궁내막염, 난관염, 골반부막염등에서 볼 수 있다.

특히 임균성염증, 트리코모나스 질염에서 볼 수 있다.

혈색도는 갈색대하는 급성염증 이외에 결핵성내막염, 자궁일부의 미관 등에서 올수있고 또 자궁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필자=서울직접실험원 산부인과장〉